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하라



이상연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지난 달 발표된 소상공인 경기동향 지수가 올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했지만, 호전될 것을 예상하는 지수 100을 초과하지 못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 활성화의 장기적 지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각종 고정비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폐업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문 닫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포 매물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권리가 없는 점포들도 많아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는 듯하다.

어떠한 환경이든 창업에는 타이밍이 있다. 창업의 3요소인 '사람, 아이템,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경기회황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잘되는 시기가 최상의 창업 타이밍임은 물론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고용,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풍족한 사업 자금이 경기 흐름까지 좋을 때 창업하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사업 초기의 성공은 그야말로 '따 놓은 당'

상'일 것이다. 하지만 환상적인 창업 타이밍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본이 없거나 부족하고 아이템과 자본이 있어도 '맨파워'(man power)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창업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나서 창업하겠다는 것은 창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창업환경은 트렌드,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창업해야 할까? 창업을 고려 중인 사업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있다고 판단되고, 창업의 3요소를 갖추는데 한 가지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창업 타이밍이다. 특히 초기 권리가 같은 자본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창업자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 두려움을 없애라. 경기 활성화의 지체와 소득정체,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서 매출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업환경은 어느 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구하기 어려웠던 점포 매

물이 증가하고 권리가 아예 없거나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하락했다.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권리의 하락은 투자 대비 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리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포 매물은 줄어들고 권리는 치솟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나 기타제반 시설비용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창업환경은 예비창업자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라 닥으며 경제 침체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을 때 과감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사람들은 권리가 적고 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성공 사업을 일궈낼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는 있지만 창업자들에게 더없이 유리한 창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조금의 마음으로 선불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눈감고 좋은 세월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망설이고 있는 시간만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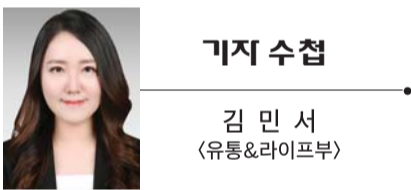


한화건설, 건축 공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한화건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5~7일 한화리조트 평창에서 '건축 공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화건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임직원들을 비롯해 지난 5~6월말까지 2개월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대학생 봉사단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건설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5기 발대
대우건설의 대학생 홍보대사 15기(이하 대대홍)가 활동에 나선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대홍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11월 9일까지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총 36명의 대대홍은 개인 SNS 활동과 다양한 주제의 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대우건설

혼자 볼게요



기지 수집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화장품, 의류 매장을 들어설 때면 고민에 빠진다. 점원의 친절함 응대할 때때로 매장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SNS에서는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점원들을 향한 성도가 끊이지 않는다. 한 누리꾼은 '필요한 제품만을 사고자 했으나, 점원의 적극적인 공세에 필요치 않은 제품까지 반강제로 구입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다. 해당 매장은 명동이라는 위치적 이점을 악용, 외국인 관광객들

에게도 넓은 '강매'를 하는 것으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추천 제품을 사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점원의 태도나, '혼자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과도한 영업이 지속될 경우의 문제는 다르다. 개개인의 이용 후기가 쌓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설 들 없이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점원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브랜드별 서비스 지침도 제각기 다르다. 결국 고객과 점원간 '적절한' 서비스가 오고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답일 테다.

이 같은 '불편한 쇼핑'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계는 언택트(un+contact) 마

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의 경우, 아주 간단한 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 '혼자 볼게요',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도입해 불필요한 서비스가 오고가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이 밖에 신세계 편집숍 시코르는 직원 응대 없는 '뷰티 놀이터'를 콘셉트로 하고, 올리브영 강남 본점은 '스마트 미러'를 도입해 고객이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서 언택트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객과 점원이 발 붙이고 있는 매장의 현실은 눈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원은 불필요한 미소를 보이지 않고, 고객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즐거운 쇼핑' 문화,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까. /min0812@metroseoul.co.kr



롯데자산개발 "정시퇴근 하세요"
롯데자산개발이 임직원들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임원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워라벨을 임원이 직접 챙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롯데자산개발 이광영 대표이사(왼쪽에서 3번째)가 사무실을 다니며 직원들에게 정시퇴근을 권유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중진공, '2세 경영인 단기학교' 입교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태백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2세 경영인 단기학교' 입교생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3기를 맞는 '2세 경영인 단기학교'는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박5일간의 일정에는 경영역량 강화, 개인 리더십 스타일링, 성공사례 탐구,

연수생간 네트워킹, 기업 경영 관련 세계 이해 등 2세 경영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연수 참가비는 52만8000원이지만 지방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연수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KB증권 ◇ 신규 (임원) △ 부동산투자본부장 (상무) 김덕규 (부사장) △ 부동산투자1부장 정찬수 △ 부동산투자2부장 신영삼 △ 부동산투자3부장 김상혁
- ◆통계청 △ 기획재정담당관 이호석 △ 혁신행정담당관 유영호 △ 전략성과팀장 원정연 △ 통계조정과장 이지연 △ 품질관리과장 김정란 △ 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용 △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이명호 △ 조사시스템관리과장 노형준 △

- 경제통계기획과장 김보경 △ 경제조사과장 문정철 △ 소득통계과장 심상욱 △ 인구동향과장 김진 △ 복지통계과장 박상영 △ 농어업동향과장 임철규 △ 통계분석실장 황현식 △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윤미선 △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안재학 △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장 최인범 △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태준 △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김우열 △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유상길

-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등 △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정희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세욱 △ 부동산산업과장 하창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원장 이정현 △ 해양정책연구소장 양희철 △ KIOST스쿨장 김봉채 △ 남해연구소장 심원준 △ 동해연구소장 박찬홍 △ 제주연구소장(직무대행) 강도형 △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장 김영옥 △ 해양자원연구본부장 지상범 △ 해양공학연구본부장 권오순 △ 해양영토연구본부장 최복경 △ 국제협력부장 강현주 △ 연구개발부장 강길모 △ 해양연구기반부장 유주형 △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

- 지대장 임장근 △ 기획부장 김세용 △ 행정부장 김석기

부음

- ▲ 김석규씨 별세, 김경환·경철·경호(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기획팀장)씨 부친상, 이인내·구진희씨 시부모 = 9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02-2290-9442
- ▲ 박창임 씨 별세, 김명수(에쓰오일 상무)·정수·정숙·정화·정란·정미·정애 씨 모친상, 김행자·김영남 씨 시모상, 박석조·유한주·김용길·배은수 빙모상 =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새로나추모관, 062-611-0000
- ▲ 강수봉(제주도 호남향우회회장)씨 별세, 강성민(제주지방경찰청 123의경대장)·혜진(제로핏 스튜디오 대표)씨 부친상, 이계상(광주MBC 기자)씨 장인상 = 9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부민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8시, 064-742-5000

| | |
|--|--------------------------------|
| metro 메트로미디어 | |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 편집국장 | 김교준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김교준 |
| 광고문의 | 02721-9851, 9826 |
| 독자센터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94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88호 |



BGF리테일, 신입사원 나눔으로 사회 첫 발
최근 워라벨 등 사람 중심의 기업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이 같은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DIY 가구를 직접 제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BGF리테일